

순국선열 독립정신 계승

전주시, 3·1절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추념탑 참배... 풍남문에서 타종행사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전북 발전을 기원하는 제100주년 3·1절 기념 독립운동 추념탑 참배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1일 송천동 전라북도 독립운동추념탑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기관 단체장과 시·도의원, 광복회원과 유족, 일반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주년 삼일절 기념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 참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행사는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인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는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풍남문으로 자리를 옮겨 광복회원과 유가족, 각 유관 기관장들과 함께하는 3·1절 기념 타종행사도 진행했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도 도청 공인장에서 진행된 3·1운동 기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지난 1일 풍남문에서 3·1절 기념 타종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에 참석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치신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3.1 운동의 정신을 기리기도 했다.

한편, 3·1절은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 온 국민이 일본의 식민통치

에 항거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민족의 자주독립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로 올해로 제100주년을 맞았다. /송효철 기자



시민들의 3·1운동 재현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재현행사가 지난날 28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재현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횃불 행진을 하며 거리를 밝히고 있다.

전주시, SPOEX컵 드론축구대회 개최

일본 드론축구팀과 친선경기도

드론축구 첫 한·일 친선경기가 열리면서,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 세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 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SPOEX)'의 부대행사로 국내 드론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2019 SPOEX컵 전국드론축구대회'와 국제 친선경기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전국드론축구대회에는 개막 이벤트로 드론축구 사상 최초의 국제친선경기인 한·일전이 펼쳐져 오는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았다.

이번 전국드론축구대회에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전국 16개 지부 산하 60개 팀, 총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전국 최강자 자리를 놓고 격돌했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 설치된 드론축구 이동식 경기장에서는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VIP시착과 시연행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 등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를 드론축구 세계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드론축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해외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 세계 각지에서 드론축구단이 창단되고 지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전국드론축구대회를 국제드론축구대회로 격상시키고 오는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축구는 드론의 활용도를 레저스포츠로까지 넓히고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 국제레저스포츠 산업전이 드론축구의 저변과 인기를 확인할 절호의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 앞에서 생동감 있는 경기 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드론축구가 대한민국 대표 ICT 레저스포츠임을 각인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드론축구대회를 열었다.

불법광고물 정비

안전통학환경 조성

전주시, 개학기 맞아

22일까지 학교주변서

전주시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학교주변의 노후·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지난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기간 동안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함께 주말 순찰반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중·고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행량이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폐쇄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또, 낙하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과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정화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이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으로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범죄신고 112·화재신고 119

전주동물원 갈 땐 165·1000번 버스

시, 주차장 3개면 전체 대상 그린빗물인프라 단계적 추진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중인 전주동물원 주차장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생태친화적인 주차장으로 탈바꿈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동물원 주차장 3개면 전체를 대상으로 '덕진공원 유역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동물원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 동물원 주차장의 주차면적이 줄어들어 관람객들이 주차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가급적 자가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동물원을 오가는 버스는 165번과 1000번이다.

이와 관련, 덕진공원 유역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덕진연못 수질개선과 빗물유출 방지를 위해 식생체류지를 조성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뒤덮인 연못 상류의 불투수면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고, 우천 시 오염된 초기우수의 하천유입이 줄어들어 덕진연못 상류의 수질과 수생태계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물원 관계자는 "덕진공원 유역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비점오염원 관리와 불순환 구조개선, 생태경관 가치 향상 등 지속가능 생태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며, 동물원을 찾을때는 가급적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

선미촌 중심으로 이전

전주시, 주민 홍보 '소소' 한마당

전주시가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을 선미촌 중심으로 이전하고 성매매집결지를 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만드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이 이전하면서 기존 현장시청 건물은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재활용품을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센터(새활용센터)'로 조성하고 서노송리빙랩사업과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매일성매매업소의 기능전환이 본격화되는 등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날 28일 선미촌 한복관으로 이전한 현장시청에서 선미촌 정비비판협회의와 사업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이전한 현장시청을 소개하고, 선미촌 문화재생산업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소(小笑, 작은 웃음) 한마당'을 개최했다.

새로 이전한 현장시청은 선미촌 중앙(권삼득로 43)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현장시청 6호인 서노송예술촌팀과 선미촌의 공동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 선미촌 문화기획단이 상주하게 된다.

시는 올해 권삼득로와 물양말 2·3길 기반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한 뒤 오는 6월부터 총 55억원을 투입해 △여행길 조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경관 정비사업 △소방도로 확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과 전주문화재단 선미촌 문화기획단은 함께 공동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주



민공동체, 주민워크숍 등 주민공동체사업 △예술공동체 및 예술과일터 문화예술 사업 △전문기회의, 워킹그룹, 프로젝트 기록화 등 기반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가 매입한 선미촌 내 옛 성매매업소 등은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공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현장시청에 이어 2호점은 오는 5월부터는 선미촌 문화예술복합공간의 변화를 위한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기존 현장시청이 자리했던 3호점은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업사이클센터'로 재탄생한다. 이곳에서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업사이클 작품 상설·기획 전시와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한 랩실 운영을 통해 업사이클 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다.

5호점에서는 '서노송예술촌 리빙랩사업'이 추진된다. 이곳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선미촌 기능전환과 여성인권 복합문화공간 조성 △성평등 플랫폼 구축 △여성인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혁신기지 조성이 추진된다. /송효철 기자

천만그루 정원도시 통합 관리시스템 가동

전주시, 행정TF팀 운영

전주시가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TF팀을 가동하는 등 통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는 전주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걸출사업이다.

시는 지난날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현현 전주시 총괄조경기, 천만그루 정원도시 관련 사업담당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그루 정원도시 행정TF팀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TF팀은 천만그루나무심기단을 중심으로, 공원분야 8개 사업과 도시숲분야 17개 사업, 정원분야 6개 사업, 생태건축물분야 15개 사업, 가로수분야 13개 사업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을 담당하는 23개 부서 31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모여 천만그루 정원도시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경기와의 자문을 거쳐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TF팀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덕진공원을 전통공원화하는 방안 △기지제를 세련되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 △택배대로를 중심으로 비람길 숲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 추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주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거쳐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정읍 한 공장서 일하던 40대 화물차에 치어 숨져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화물트럭에 치어 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25분경 정읍시 북면의 한 닭 가공공장에서 직원 최모씨(48)가 박모씨(55)가 몰던 1t 화물트럭에 치어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퇴근하던 최씨가 완제품을 싣고 주차장을 나가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씨가 최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시도 대학생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에게 용서 구한 점 등 종합해 판결"

채팅어플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모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4일 오후 5시경 전북의 한 모텔에서 B모씨(당시 17세)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2017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너희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B양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부안서 교회 식당 가스 폭발

교회 식당에서 LP가스가 폭발해 신도 2명이 다쳤다.

전북소방본부는 3일 오전 4시 50분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한 교회 식당에서 LP가스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신도 박모씨(61·여)와 이모씨(71·여) 등 2명이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이 먹을 점심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요리를 하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